

#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

##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rogram using a Career Camp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김종운, 이태곤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Jong-Un Kim(jongun21@hanmail.net), Tae-Gon Lee(5460201@hanmail.net)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부산 소재 전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50명을 추천받아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25명씩 무선배치하였다. 실험집단에게는 8회기의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았다. 모든 연구가 끝난 후 통제집단에 대해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척도들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성숙도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둘째,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인 진로탐색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셋째,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장벽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진로교육을 위한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모델 및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교육청에서의 다양한 진로캠프 개발 모델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중심어 : | 진로캠프 | 진로성숙도 | 진로자기효능감 | 진로장벽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rogram using a career camp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50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Busan, who ar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is an experimental group of 25 students and the other is a control group. The result is analyzed by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for the career maturity,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using a career camp showed higher level in career maturity as a whole opposed to the control group. Second,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using a career camp showed higher level in career self-efficacy. Third,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career education program using a career camp showed lower level in career barriers as a whole opposed to the control group.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 model for career education program using a career camp of department of education.

■ keyword : | Career Camp | Career Maturity | Career Self-efficacy | Career Barriers |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4년 09월 01일

수정일자 : 2014년 10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0월 14일

교신저자 : 이태곤, e-mail : 5460201@hanmail.ne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는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진로탐색과 계획 및 준비를 위한 기초소양을 키움으로써,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배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1].

그러나 초등학교의 진로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교육이 예산이나 업무의 부담, 안전사고 위험성 등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단순하고 일회성 행사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직업세계의 역동성이나 다양성을 체험할 기회가 부족하다[2]. 학생들은 적성, 흥미 탐색 등 자기의 이해가 부족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과 능력 부족 등을 인식하여 장래희망을 이루기 어렵다고 느낀다[3]. 학생 수준에 맞는 자료들도 부족하고, 학부모들의 관심도 낮아 효과적인 진로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4].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초등학교 진로교육은 교과서 중심으로 교실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으로 한다[6]. 이러한 이유로 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캠프는 스포츠 캠프, 음악 캠프, 과학 캠프, 미술 캠프, 요리 캠프, 봉사 캠프 등 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 전체를 일컫는다[7]. 각종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해당 분야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그 분야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활동해 봄으로써 다양한 능력의 함양 등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전문가에게 관심과 흥미가 있는 분야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막연한 상식에서 보다 세분화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캠프의 장점이다[8].

진로캠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장소에서 단기간에 진

로검사, 멘토-멘티의 연계, 진로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1]. 진로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탐색기회를 갖게 된다. 멘토-멘티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유형에 맞는 선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진로캠프 이후에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진로에 맞는 지속적 정보교류를 통해 기초적인 진로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다. 학생의 흥미와 적성과 맞는 진로캠프를 통해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진로캠프의 장점이라고 하겠다[9].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로 기대되는 변인으로는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있다.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청년 실업 문제와 함께 진로 성숙에 대한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5], 개인의 믿음과 자신감의 문제가 연관이 있다고 보는 진로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10]. 또한 초·중·고등학교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 장벽에 대한 지각이 높아지고 진로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진로성숙도는 Super와 Crites에 의해 발달되었던 개념으로 Super는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직업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로 이야기하는 반면, Crites는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직업준비의 정도로 개념화하고 있다[12][13]. 한편 Gibbons와 Lohnes는 진로성숙을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에서의 준비도로 생각하고, Hoyt는 개인이 자아와 직업세계를 잘 이해한 바탕에서 이 양자를 잘 통합할 수 있는 준비도로 보고 있다[10]. 이와 같이 진로성숙이란 발달적 개념이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의 정도란 개념으로 종합할 수 있다.

Bandura에 의해서 제안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14]. Betz와 Hackett은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 영역에 적용하여 진로선택과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진로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15]. 진로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는 것이다 [10].

진로 장벽은 자신감 부족, 낮은 동기 등과 같은 심리적 측면에 해당되는 개인 내적 요인과 교육기회의 부족, 가난 등과 같이 주로 환경에서 발견되는 외적 요인으로 구성된다[16]. 국내연구에서도 진로발달과 관련된 과거 어려움 및 장애, 미래의 계획과 성취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어려움 및 장애를 진로장벽으로 설명하였다[17][18]. 진로장벽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애도 될 수 있지만,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것으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과정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19]. 이는 개인이 받아들이는 진로장벽에 대한 정도가 심리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 이와 같이 진로장벽은 진로 선택이나 진로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개인 내적, 심리적 요인과 외적, 환경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통칭하는 것이다.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장벽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21-23], 진로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24-26],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27-29]가 있고,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30-33], 진로장벽과 진로효능감에 관한 연구[34][35],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36]도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는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진로교사와 자원봉사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진로멘토가 학생들과 1박 2일 전 과정을 함께 하는 집중적인 진로캠프는 진로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업무경감에 도움을 주고, 진로캠프를 활용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교육청에서의 다양한 진로캠프 모델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캠프가 활동 중심 진로교육 프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단위 학교에서 유사한 프로그램 수립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 나.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 다.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부산 소재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6학년 50명을 추천받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25명씩 무선배치하였다.

표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원구성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계
남	10	10	20
여	15	15	30
계	25	25	50

프로그램 시작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같은 내용의 설문지로 사후 검사를 실시했다. 실험집단은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1박 2일 동안 총 8회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연구가 끝난 후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진로성숙도 척도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 척도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7]에서 개발한 진로성숙도 척도를 차미자[38]가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네 가지 하위영역인 독립성 10 문항, 계획성 8문항, 일에 대한 태도 10문항, 자기이해 11문항을 포함하여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성숙도 검사의 각 하위척도별 신뢰도 Cronbach  $\alpha$  계수는 .70에서 .82이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나. 진로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는 강지유[25]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세 가지 하위영역인 진로탐색효능감 12문항, 진로결정효능감 6문항, 진로수행효능감 12문항을 포함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자기효능감 검사의 각 하위척도별 신뢰도 Cronbach  $\alpha$  계수는 .75에서 .92이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다. 진로장벽 척도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 척도는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39]와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40]를 정혜윤[11]이 초등학생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일곱 가지 하위영역인 자기 이해의 부족 4문항, 자신감 부족 11문항,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8문항,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6문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4문항,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 4문항, 경제적 어려움 5문항을 포함하여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요인 중 6개의 하위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사용하였고,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요인 문항은 정혜윤[11]이 Swanson과 Daniel[41]의 진로장벽 검사와 O'Neil, Helms, Gable,

David 및 Wrightsman[42]의 성역할 갈등 척도를 토대로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채점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장벽 검사의 각 하위척도별 신뢰도 Cronbach  $\alpha$  계수는 .75에서 .93이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6으로 나타났다.

3.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리더십연주소 '아름다운 배움'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담당 장학사 2명, 부산광역시 진로진학상담교사 3명, 진로상담 전공 교수 1명의 자문을 받아 부분 수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만남의 장(1회기), 활동의 장(6회기), 결실의 장(1회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일정표

일 자	시 정	교 육 내 용
1일차	09:00~09:50 (50분)	○ 입소식, 안전교육
	10:00~12:00(120분)	○ 1회기: 나를 찾아가는 여행
	12:00~13:00 (60분)	○ 점심식사, 휴식
	13:00~14:30 (90분)	○ 2회기: 성공의 기초, 매력적인 나
	14:40~15:40 (60분)	○ 3회기: 꿈의 목록
	15:50~17:30(100분)	○ 4회기: 비전시각화
	17:30~18:40 (70분)	○ 저녁식사, 휴식
	18:40~21:20(160분)	○ 5회기: 멘토에게 길을 묻다
	21:20~22:00 (40분)	○ 간식, 숙소이동, 취침준비
	22:00~	○ 취침
	2일차	07:00~08:00 (60분)
08:00~09:00 (60분)		○ 전통놀이(활쏘기, 제기차기, 투호)
09:00~10:40(100분)		○ 6회기: 도전 진로 골든벨
10:50~12:00 (70분)		○ 7회기: 나를 뛰어넘기
12:00~13:00 (60분)		○ 점심식사, 휴식
13:00~14:30 (90분)		○ 8회기: 자신감증진
14:40~15:20 (40분)		○ 소감나누기, 설문지
15:30~15:50 (20분)		○ 퇴소식

첫째 날은 1회기부터 5회기까지 실시하였다. 1회기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홀랜드 진로탐색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2회기는 성공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몸으로 학습하고, 자기소개법과 이름기억법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설계하였다. 3회기는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

은 곳, 가슴 뛰고 즐거운 일 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꿈의 목록을 작성하고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회기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꿈을 비전콜라주 작업을 통해 꿈과 비전을 시각화·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설계하였다. 5회기는 자신의 진로 고민에 대해 멘토와 상담하여 고민을 해결하고, 다양한 전공과 전공 관련 직업을 순환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3.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단계	회기	활동주제	활동목표	활동내용
활동의장	1	나를 찾아가는 여행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홀랜드 진로탐색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	①프로그램의 목적 안내하기 ②공통의 규칙과 서약서 만들기 ③홀랜드 진로탐색검사 실시하기 ④검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대화하기 ⑤느낌 나누기
	2	성공의 기초 & 매력적인 나	성공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몸으로 학습할 수 있다. 자기소개법과 이름기억법을 통해 매력적인 나를 만들 수 있다.	①성공에 필요한 것 무엇인지 토론하기 ②성공에 필요한 핵심요소 11가지를 연상기법을 통해서 몸으로 학습하기 ③자기소개법을 통하여 자기 PR 능력 향상시키기 ④이름기억법을 통하여 긍정적인 첫 인상 만들고 친구들과 자연스런 관계 형성하기 ⑤느낌 나누기
	3	꿈의 목록	꿈의 목록 발표를 통해 자신의 꿈을 설계할 수 있다.	①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가슴 뛰고 즐거운 일 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꿈의 목록 작성하기 ②꿈의 목록 발표를 통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서로 공유하며 서로의 꿈에 대해서 계획하고 설계하기 ③느낌 나누기
	4	비전 시각화	비전콜라주 작업을 통해 비전을 시각화할 수 있다.	①꿈의 목록에서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꿈 10가지 선택하기 ②비전콜라주 작업을 통해 꿈과 비전을 시각화구체화하기 ③느낌 나누기
	5	멘토에게 길을 묻다	자신의 진로 고민에 대해 멘토와 상담하여 다양한 전공과 관련 직업에 대해 탐색한다.	①자신의 진로 고민을 멘토와 상담하기 ②자신의 비전에 대해 멘토와 대화하기 ③다양한 전공과 관련 직업 학습하기 ④느낌 나누기
	6	도전 진로 골든벨	진로 골든벨 퀴즈를 통해 다양한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①진로 골든벨 퀴즈를 통해 다양한 진로 정보 얻기 ②느낌 나누기
	7	나를 뛰어넘기	역할극을 통해 자신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	①자유로운 자기 표현법 익히기 ②역할극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용기 갖기 ③성공 경험을 통해 혁신적인 나를 설계하고 새로운 도전의 계획을 준비하기 ④느낌 나누기
	결실의장	8	자신감 증진	자신감의 증진을 통해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다.

둘째 날은 6회기부터 8회기까지 실시하였다. 6회기는 진로 골든벨 퀴즈를 통해 다양한 진로와 진학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7회기는 역할극을 통해 자신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8회기는 자신감 증진을 통해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변인들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얻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공변량분석(ANCOVA)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집단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 사전, 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공변인(사전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점수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고,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진로성숙도 척도의 사전, 사후, 교정평균

하위요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수정된 사후검사		
	M	SD	M	SD	M	SE	
독립성	통제	39.12	5.13	39.28	5.13	39.81	.69
	실험	40.48	5.29	43.52	4.20	43.00	.69
계획성	통제	33.20	4.42	32.56	4.46	32.73	.44
	실험	33.80	4.08	36.04	3.17	35.87	.44
일에대한 태도	통제	42.16	5.21	40.76	5.82	40.63	.75
	실험	41.56	6.55	45.48	3.92	45.61	.75
자기 이해	통제	44.28	6.12	44.12	7.04	44.12	.87
	실험	43.64	8.10	48.12	5.99	48.12	.87
전체	통제	158.76	18.03	156.72	19.30	157.28	2.01
	실험	159.48	20.52	173.16	13.01	172.60	2.01

표 5. 진로성숙도 척도의 공변량분석 결과

하위요인	변산원	SS	df	MS	F	P
독립성	공변인	492.82	1	492.82	41.18	.000
	집단	142.34	1	142.34	11.89	.001
	오차	562.46	47	11.97		
	합계	86978.00	50			
계획성	공변인	487.35	1	487.35	98.83	.000
	집단	114.20	1	114.20	23.16	.000
	오차	231.77	47	4.93		
	합계	59695.00	50			
일에대한태도	공변인	547.86	1	547.86	40.68	.000
	집단	319.53	1	319.53	23.73	.000
	오차	632.94	47	13.47		
	합계	94426.00	50			
자기이해	공변인	902.93	1	902.93	37.02	.000
	집단	240.05	1	240.05	9.84	.003
	오차	1146.36	47	24.39		
	합계	108602.00	50			
전체	공변인	7476.16	1	7476.16	63.54	.000
	집단	3188.76	1	3188.76	27.10	.000
	오차	5530.24	47	117.67		
	합계	1376645.00	50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성숙도 전체에서 사전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가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7.10, p=.000). 즉 실험 집단의 사전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의 평균은 172.60으로 통제집단의 평균인 157.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독립성(F=11.89, p=.001), 계획성(F=23.16, p=.000), 일에 대한 태도(F=23.73, p=.000), 자기이해 점수(F=9.84, p=.003)에서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2.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사전, 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공변인(사전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고,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성숙도 전체에서 사전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가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1.79, p=.001). 즉 실험 집단의 사전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의 평균은

129.84로 통제집단의 평균인 122.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진로탐색효능감(F=10.69, p=.002), 진로결정효능감(F=18.47, p=.000)에서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진로수행효능감(F=1.04, p=.312)에서는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진로자기효능감 척도의 사전, 사후, 교정평균

하위요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수정된 사후검사	
		M	SD	M	SD	M	SE
진로탐색 효능감	통제	49.12	6.61	49.60	6.99	49.43	.82
	실험	48.64	6.74	53.08	5.18	53.25	.86
진로결정 효능감	통제	24.36	3.01	24.36	3.87	24.30	.49
	실험	24.16	3.91	27.24	2.39	27.30	.49
진로수행 효능감	통제	48.52	6.63	48.48	6.80	48.46	.55
	실험	48.48	5.78	49.24	5.20	49.26	.55
전체	통제	122.00	15.26	122.44	16.96	122.16	1.58
	실험	121.28	15.96	129.56	11.68	129.84	1.58

표 7. 진로자기효능감 척도의 공변량분석 결과

하위요인	변산원	SS	df	MS	F	P
진로탐색 효능감	공변인	1018.68	1	1018.68	60.06	.000
	집단	181.33	1	181.33	10.69	.002
	오차	797.16	47	16.96		
	합계	133757.00	50			
진로결정 효능감	공변인	210.32	1	210.32	34.56	.000
	집단	112.40	1	112.40	18.47	.000
	오차	286.00	47	6.09		
	합계	33882.00	50			
진로수행 효능감	공변인	1401.47	1	1401.47	185.38	.000
	집단	7.90	1	7.90	1.04	.312
	오차	355.33	47	7.56		
	합계	121129.00	50			
전체	공변인	7233.34	1	7233.34	115.52	.000
	집단	738.05	1	738.05	11.79	.001
	오차	2942.99	47	62.62		
	합계	804610.00	50			

## 3.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 사전, 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공변인(사전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점수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8]과 같고,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8. 진로장벽 척도의 사전, 사후, 교정평균

하위요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수정된 사후검사	
		M	SD	M	SD	M	SE
자기 이해의 부족	통제	7.12	2.68	7.56	2.90	7.54	.38
	실험	7.04	2.65	5.56	1.58	5.58	.38
낮은 학습 효능감	통제	19.36	6.63	19.64	7.06	19.43	.88
	실험	18.64	6.73	15.56	4.11	15.77	.88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통제	14.08	4.97	14.28	4.76	13.99	.50
	실험	13.40	5.35	11.84	5.31	12.13	.5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통제	10.24	3.23	10.76	3.54	10.49	.47
	실험	9.40	2.97	8.36	2.46	8.63	.47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통제	7.24	2.79	7.36	2.80	7.34	.33
	실험	7.16	2.58	5.64	1.52	5.66	.33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통제	6.48	2.08	7.20	2.78	7.30	.40
	실험	6.84	2.72	5.96	1.86	5.86	.40
경제적 어려움	통제	8.40	2.68	8.44	2.84	8.34	.44
	실험	7.96	3.18	6.84	2.19	6.94	.44
전체	통제	72.92	21.47	75.24	23.19	74.40	2.53
	실험	70.44	22.62	59.76	14.79	60.60	2.53

표 9. 진로장벽 척도의 공변량분석 결과

하위요인	변산원	SS	df	MS	F	P
자기 이해의 부족	공변인	96.71	1	96.71	27.45	.000
	집단	47.88	1	47.88	13.59	.001
	오차	165.61	47	3.52		
	합계	2464.00	50			
낮은 학습 효능감	공변인	704.49	1	704.49	36.81	.000
	집단	167.58	1	167.58	8.76	.005
	오차	899.43	47	19.14		
	합계	17300.00	50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공변인	926.43	1	926.43	149.13	.000
	집단	43.10	1	43.10	6.94	.011
	오차	291.97	47	6.21		
	합계	9821.00	5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공변인	190.49	1	190.49	35.00	.000
	집단	42.48	1	42.48	7.80	.008
	오차	255.83	47	5.44		
	합계	5088.00	50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공변인	115.96	1	115.96	42.72	.000
	집단	35.01	1	35.01	12.90	.001
	오차	127.56	47	2.71		
	합계	2393.00	50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공변인	79.31	1	79.31	19.65	.000
	집단	25.45	1	25.45	6.31	.016
	오차	189.66	47	4.04		
	합계	2453.00	50			
경제적 어려움	공변인	88.32	1	88.32	18.77	.000
	집단	24.25	1	24.25	5.15	.028
	오차	221.20	47	4.71		
	합계	3260.00	50			
전체	공변인	10671.17	1	10671.17	67.07	.000
	집단	2373.73	1	2373.73	14.92	.000
	오차	7477.95	47	159.11		
	합계	248957.00	50			

[표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장벽 전체에서 사전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가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4.92, p=.000$ ). 즉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에 의해 수정된 사후검사의 평균은 60.60으로 통제집단의 평균인 74.4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자기이해의 부족( $F=13.59, p=.001$ ), 낮은 학습효능감( $F=8.76, p=.005$ ),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F=6.94, p=.011$ ),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F=7.80, p=.008$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F=12.90, p=.001$ ),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 $F=6.31, p=.016$ ), 경제적 어려움( $F=5.15, p=.028$ )에서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함이며, 연구 집단들 간 사전-사후 검사에서 얻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공변량분석(ANCOVA)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집단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성숙도 전체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성숙도의 하위 요인 중에서 계획성은 3회기의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가슴 뛰고 즐거운 일 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꿈의 목록을 작성해 본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자기이해는 1회기의 홀랜드 진로탐색 검사 활동과 2회기의 자기소개 활동이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선행연구들[21-23]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교육청에서의 다양한 진로캠프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는 2016학년도부터 실

시 예정인 자유학기제에 대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43]. 먼저 교육부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도 교육청에 보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도청, 구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로캠프를 전달할 진로캠프지원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캠프지원센터에서는 진로캠프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진로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단위 학교에서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하여 교내 및 수련원 등을 활용하여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1회 이상의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단위 학교에서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비용, 흥미 위주의 외부 사설 업체에 진로캠프를 위탁하기보다는 시도에 배치되어 있는 진로교사를 주강사로, 단위학교 인솔교사, 학부모 진로코치,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을 보조교사로 활용하여 시도 교육청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원 등의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인 진로탐색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점수에서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진로탐색효능감은 6회기의 도전 진로골든벨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진로와 진학 정보를 얻은 점이 큰 도움이 되었다. 진로결정효능감은 5회기의 자신의 진로 고민을 멘토와 상담하는 활동이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선행연구들[24-26]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진로교사 배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성을 갖춘 진로교사와 자원봉사 대학생 등

으로 구성된 진로멘토가 참여하여 학생들과 1박 2일 전 과정을 함께 하였다. 교육부에서는 2011년부터 점차적으로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고 있고 2013년도 현재 4,550명을 배치하였다(중 72%, 고 100%)[9].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도 학년 군별로 진로 교육이 활성화되었으나[44] 일선 학교에서는 진로교육 담당인력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학교 안에서의 체계적인 진로교육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45].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에도 진로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장벽의 전체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 중에서 낮은 학습 효능감은 7회기의 역할극을 통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용기를 갖는 활동과 8회기의 과거의 성공 경험을 찾아 정리하고 발표하는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4회기의 비전콜라주 등을 통해 꿈과 비전을 시각화, 구체화하는 활동이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장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27-29]와 일치한다.

그동안 진로장벽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분야는 성별에 따른 차이였다. Betz와 Fitzgerald는 여성의 진로발달과 남성의 진로발달은 차이가 있으며, 여성은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남성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진로장벽의 영향력이 남성보다 클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4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7]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와 관련하여 더 많은 장벽을 지각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48]도 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진로장벽을 지각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남성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사회활동 시작 전인 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장벽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이 진로장벽을 더 높게 인식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49]. 단지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진로장벽은 다양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 진로와 관련된 여러 장벽을 경험할 수 있다[18]. 홍세희 등은 진로장벽은 이미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되어 중학교 시기와 고등학교 시기에 유사한 수준으로 시작된다고 하였다[50]. 따라서 아동기 과정에서부터 진로장벽을 느낄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로장벽 극복에 대한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진로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업무경감에 도움을 주고, 진로캠프를 활용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델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전체 초등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지역, 학년, 학교 수준, 그 외의 연구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진로수행효능감은 사후점수가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그 결과가 유의미한 수준은 되지 못했다. 이는 본 프로그램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보다 집중하였기에 진로수행 부분이 유의미하게 상승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프로그램 수정과정에서는 진로수행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초등학생들을 위한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교육과학기술부, 2012.  
 [2]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 종합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10.  
 [3] 임연, "진로교육에 대한 고교 교사의 내러티브 탐

구",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1권, 제3호, pp.193-218, 2008.  
 [4] 박진숙, *인지적 정보처리이론에 근거한 초등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 검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5] 정보현, *비전수립 코칭 프로그램이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6]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과정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2009.  
 [7] 임재훈, "미국 : 진로가 방학을 다르게 만든다", *초등우리교육*, 제126권, pp.60-64, 2000.  
 [8] 황인형, "막막한 진로지도, 비전캠프로 해결하다 - 전문계고 집단 진로 탐색 프로그램", *중등우리교육*, 제235권, pp.158-163, 2009.  
 [9] 교육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부, 2013.  
 [10] 김병숙, *직업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7.  
 [11] 정혜윤, *성별 및 학교급별에 따른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진로장벽수준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2] D. E. Super, "Dimensions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Vol.57, No.3, pp.151-163, 1955.  
 [13] J. O. Crites,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8, No.3, pp.255-259, 1961.  
 [14]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pp.191-215, 1977.  
 [15] N. Bet and G. Hackett,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8, pp.399-410, 1981.  
 [16] J. O. Crites,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Graw- Hill, 1969.  
 [17] 김은영,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

- 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18] 손은령,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19] R. Lent, S. D. Brown, and G. Hackett,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7, pp.36-49, 2000.
- [20] 이성식, 정철영,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9권, 제4호, pp.83-109, 2007.
- [21] 신임선, 장윤옥, "커리어포트폴리오형 및 교사주도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24권, 제1호, pp.85-104, 2012.
- [22] 임미옥, 정연옥, "교과통합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23권, 제2호, pp.379-398, 2010.
- [23] 허정철,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0호, pp.356-364, 2013.
- [24] 허정철,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pp.486-495, 2011.
- [25] 강지유,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및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6] 김윤주, 유형근, 권순영, "초등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진로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pp.87-106, 2010.
- [27] 박미경, *여대생의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구조모형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28] 정미예, *대학생의 진로장애 지각, 진로신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발달의 구조적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29] D. A. Luzzo and S. A. Jenkins, "Perceived occupational barriers among Mex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TCA-Journal*, Vol.24, No.1, pp.1-8, 1996.
- [30] 김종운, 김말선,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진로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제25권, 제3호, pp.201-227, 2012.
- [31] 허정철,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27-236, 2012.
- [32] 황명옥, "NLP기법을 사용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교육연구*, 제21권, pp.123-144, 2013.
- [33] 김영희,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817-828, 2013.
- [34] 김경식, 김찬선,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404-414, 2013.
- [35] 박성실,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36] 송병국, 진주연,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제20권, 제1호, pp.235-264, 2013.
- [37] 임언, 정윤경, 상경아, *진로성숙도검사 개발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 [38] 차미자,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의 차이*,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9]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

- 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상담학 연구, 제6권, 제4호, pp.1205-1223, 2005.
- [40]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비교”,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125-159, 2005.
- [41] J. L. Swanson and K. K. Daniels, *The relation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1995.
- [42] J. M. O’Neil B. J. Helms, R. K. Gable, L. David, and L. S. Wrightsman,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Vol.14, pp.335-350, 1986.
- [43] <http://if-blog.tistory.com/2799>
- [44] 교육과학기술부, *초등학교 진로교육 매뉴얼*, 세원문화사, 2010.
- [45]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 진로교육 시행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10.
- [46] N. E. Betz and L. F. Fitzgerald,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FL: Academic Press, 1987.
- [47] 이상희,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48] 이기학, “대학생의 진로교육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미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11권, 제1호, pp.13-21, 2003.
- [49] 송병국, 전주연,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제20권, 제1호, pp.235-264, 2013.
- [50]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9권, 제4호, pp.1159-1177, 2005.

저 자 소 개

김 중 운(Jong-Un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상담심리) 박사
  - 2005년 ~ 2006년 : 인디애나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방문교수
  - 2009년 ~ 2012년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2008년 3월 ~ 현재 :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상담, 학교상담, 아동청소년 상담심리

이 태 곤(Tae-Gon Lee)

정회원



- 2012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교육상담) 박사수료
  - 2012년 ~ 2013년 : 부산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파견 교육연구사
  - 2014년 3월 ~ 현재 : 남부민초등학교 방과후교육 부장교사
- <관심분야> : 진로, 상담, 초등교육